

# 정부 할인지원에 농산물 가격 하락

### 사과 11.6%·배 13.4% 하락 중도매 가격은 전년비 2배 ↑

정부가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물가 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따라 일주일만에 사과·배 등 농산물 소매가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급한 불은 껴다는 평가 속에, 언제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당 소매가는 2만4250원으로 정부가 대규모 물가 안정 자금을 투입하기 전인 지난 15일 대비 11.6%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 자금을 추가 투입했다.

기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450억원)을 대폭 확대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예산 투입 효과는 바로 나타나 사과를 비롯한 배, 토마토 등 '비싼' 농작물의 소매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배(신고·상품)는 지난 22일 기준 10개 당 소매가가 3만9312원으로, 1주 전보다 13.4% 떨어졌다.

같은 기간 토마토(상품·1kg)의 소매가 역시 전주보다 12.9% 내린 7107원을 기록했고, 딸기(상품·100g)은 6.1% 떨어져 1303원에 거래됐다.

또 정부가 지난해 이상 기후로 작황부진을 겪어 공급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비싸진 국산과일의 대체품목으로 내세운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도 관세인하 품목 확대 및 대체 과일 공급 확대 등 과일 수요 분산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바나나(상품·100g)의 소매가는 지난 22일 기준 297원으로 전주보다 5.4% 내렸고, 파인애플(상품)은 1개당 6901원으로 같은 기간 5.1%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매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할 때의 가격을 가리킨다. 과일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매가가 하락하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할인지원 및 유통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할인 행사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소매가는 떨어졌지만, 중도매가는 여전히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매가는 중도매인이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사과(후지·상품) 10kg 당 중도매가는 22일 기준 9만 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올랐고 전년보다는 121.5% 높다.

그 외에도 배(신고·상품) 중도매가는 1년 전에 견줘 147.3% 높았고, 배추 등 채소류의 중도매가도 최대 6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산물 가격 강세는 지난해 생육기 중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및 공급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이상기후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농산물 가격 급등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국회의원달력' 보며 농사 짓던 시절이

#### 농사달력, 한해 농사 지침서...첨단 농업 등장에 설자리 잃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사달력은 한해 농사의 계획표이자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농어촌에서 집마다 농협이나 농어촌공사 등에서 만든 농사달력이 집안 잘 보이는 곳에 하나씩은 자리를 잡고 이유이기도 하다. 나 역시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이 미천해, 농사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참고하는데 참 실용적이다.



있었는데, 가운데 큼지막하게 지역 국회의원 상반신 사진이 들어 있었기에 국회의원달력이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달력에는 국회의원 사진뿐 아니라 영농도표도 들어 있었다.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이 뽁뽁이 기록된 표였다. 지금은 말하면 농가월령달력인 셈이었다. 농가에서는 이 달력을 온 식구들 눈에 잘 띄도록 마루의 벽에다 풀을

문명사에 있어 달력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신'이었을 것이다. 일단, 씨를 뿌리거나 거름을 하는 시기를 잡는 것만 해도 매우 어렵고 뻔뻔한 작업일인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달력에 따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농사일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달력(calendar)의 어원은 '회계 장부'라는 뜻의 라틴어 'calendarium'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고대 로마에서는 재판(法官)이 초승달을 보고 피리를 불어 월초(月初)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때 매월 초하루의 날짜를 'calend'라고 했다고 한다. 초승달이 뜨면서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기록한 것이 시초가 돼 지금과 같은 모습의 달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잔뜩 칠해 붙여 놓았다. 보잘것없는 한 장짜리 달력임장정 한 해 동안 참으로 요긴한 농가의 동반자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달력이 왜,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그랬지 않았나 싶다.

달력(calendar)의 어원은 '회계 장부'라는 뜻의 라틴어 'calendarium'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고대 로마에서는 재판(法官)이 초승달을 보고 피리를 불어 월초(月初)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때 매월 초하루의 날짜를 'calend'라고 했다고 한다. 초승달이 뜨면서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기록한 것이 시초가 돼 지금과 같은 모습의 달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달력(calendar)의 어원은 '회계 장부'라는 뜻의 라틴어 'calendarium'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고대 로마에서는 재판(法官)이 초승달을 보고 피리를 불어 월초(月初)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때 매월 초하루의 날짜를 'calend'라고 했다고 한다. 초승달이 뜨면서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기록한 것이 시초가 돼 지금과 같은 모습의 달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달력(calendar)의 어원은 '회계 장부'라는 뜻의 라틴어 'calendarium'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고대 로마에서는 재판(法官)이 초승달을 보고 피리를 불어 월초(月初)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때 매월 초하루의 날짜를 'calend'라고 했다고 한다. 초승달이 뜨면서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기록한 것이 시초가 돼 지금과 같은 모습의 달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원한 달력은 그만큼 유용했으며, 태양력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달력이 나와 대중적으로 쓰일 때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렇게 기원한 달력은 그만큼 유용했으며, 태양력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달력이 나와 대중적으로 쓰일 때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렇게 기원한 달력은 그만큼 유용했으며, 태양력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달력이 나와 대중적으로 쓰일 때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래서인지 달력은 귀한 존재였다. 불과 수십여 년 전만 해도 열두 장짜리 벽걸이 달력은 요즘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대신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달력(사진)'이라고 불렀던 한 장짜리 달력이 상큼한 잉크 냄새를 풍기며 이·동장을 통해 집집이 딱 한 장씩 전달됐다. 가로세로 크기가 오늘날의 열두 장 짜리 벽걸이 달력 정도의 것으로 한 장에 열두 달이 다 들어

있었는데, 가운데 큼지막하게 지역 국회의원 상반신 사진이 들어 있었기에 국회의원달력이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달력에는 국회의원 사진뿐 아니라 영농도표도 들어 있었다.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이 뽁뽁이 기록된 표였다. 지금은 말하면 농가월령달력인 셈이었다. 농가에서는 이 달력을 온 식구들 눈에 잘 띄도록 마루의 벽에다 풀을 잔뜩 칠해 붙여 놓았다. 보잘것없는 한 장짜리 달력임장정 한 해 동안 참으로 요긴한 농가의 동반자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달력이 왜,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그랬지 않았나 싶다.

있었는데, 가운데 큼지막하게 지역 국회의원 상반신 사진이 들어 있었기에 국회의원달력이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달력에는 국회의원 사진뿐 아니라 영농도표도 들어 있었다.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이 뽁뽁이 기록된 표였다. 지금은 말하면 농가월령달력인 셈이었다. 농가에서는 이 달력을 온 식구들 눈에 잘 띄도록 마루의 벽에다 풀을 잔뜩 칠해 붙여 놓았다. 보잘것없는 한 장짜리 달력임장정 한 해 동안 참으로 요긴한 농가의 동반자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달력이 왜,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그랬지 않았나 싶다.

/bigkim@kwangju.co.kr

## 미국 애너하임 식품박람회서 'K-푸드' 건강한 매력 알렸다

### aT, 딸기 홍보관 등 운영 36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2024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PEW2024)'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애너하임 박람회는, 전 세계 136개국 3600여 업체가 참여하고 전세계 8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다.

aT는 박람회에서 우수 'K-푸드' 수출업체 30개사와 'K-베리' 딸기 홍보관을 비롯해 '통합한국관'을 설치해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특히 딸기, 버섯, 포도 등 우리나라의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고, 최근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K-김밥과 고추장, 김치, 떡볶



이,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선보여 세계 시장에 K-푸드의 매력을 뽐냈다.

력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총 36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장윤영 기자 zzang@

## "렘피스킨 발생 막는다"...축산농가 백신접종

### 농식품부, 10월까지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인 렘피스킨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렘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흡혈 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한다

는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렘피스킨이 이미 발생한 곳과 발생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 등 모두 40개 시·군·소계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129만마리에 대해 우선 접종한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왔고,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감염 사례가 모두 107건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한 농가 대부분 서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 등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해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항구 출입 축산 차량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현장간담회

### 수정불량·잿빛곰팡이병 등 피해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2일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북광주농협 관내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해 일조량이 평년의 85%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 농작물을 중심으로

수정 불량, 열매 성숙 지연, 잿빛곰팡이병 등의 병해가 발생했다.

농협 광주본부가 계통사무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딸기와 방울토마토, 화훼 등 시설작목 182ha에 피해가 나타났으며, 생산량은 최소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일반적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 상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3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